

남도 대표 특산물 롯데몰에서 만나요

남도산지 직송관 개설 무안 황토랑쌀 등 판매

남도 대표 농수축산물을 롯데백화점 온라인 쇼핑몰인 '엘롯데' (ellotte.com)에서 만나다. 13일 롯데백화점 호남충청지역은 롯데백화점의 공식 온라인몰인 '엘롯데'에 '남도산지 직송관'을 지난 9월부터 개설·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 지역 특산물인 '남도산지 직송관'에는 지역 우수 생산자 160개 농가의 700여개 품목이 선 보여지고 있다. 특히 전남도가 운영 하는 농수축산물 종합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입점 업체 상품을 내놓아 먹거리 안전을 보장했다.

대표 상품으로는 '무안 황토랑쌀', 완도 활전복, '나주 녹색한우' 등이 있다.

1인 가구와 '혼밥족'을 겨냥해 남도의 특산물로 가공한 닭볶음탕, 재첩국 등의 가정 간편식도 선보인다. 휴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양파즙, 도자지배즙, 석류진액

등 건강 보조 식품도 다양하게 내놓았다.

롯데백화점 호남충청지역과 전남도는 지난 8월 '전남도 농수축산물 판로확대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지역 특산물의 판로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 2월 신설된 롯데백화점 호남충청지역은 지역 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완도 수산물 대전', '흑산도 홍어 산지 직송전' 등의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남도 직거래 장터' 개최, 지역 대표 농산물의 대량 기획 품목 확대 등을 통해 지역 특산물 판로 지원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롯데닷컴'과 '롯데아이몰'을 통한 우수 특산물 홍보 활동도 진행될 예정이다.

정운성 롯데백화점 호남충청지역장은 "롯데백화점의 공식 온라인몰인 엘롯데에 남도의 우수한 특산물을 소개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전라남도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특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연말 소비자의 닫힌 지갑을 열어라”

광주 주요 백화점 15일~12월 1일 겨울 정기세일 돌입

광주지역 백화점들이 1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올해 마지막 겨울 정기세일에 돌입한다.

이번 세일은 백화점이 세일을 주도하면 할인행사 비용의 절반 이상을 내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특약매입 지침이 시행되기 전 마지막 정기세일이다. 이 때문에 백화점 업계에서는 입점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주)광주신세계는 15일~12월1일 17일간 최대 30% 할인율을 내건 정기세일을 진행한다.

15일~12월1일에는 행사카드로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구매 금액의 5%

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증정한다.

해의 유명 패션 브랜드들도 할인전에 이름을 올렸다.

22일~12월8일 '바네사부르노' '질스튜어트' '자디엔볼테르'는 30% 저렴한 가격에 상품 내놓는다.

'글로디피에로' (29일~12월15일)는 30%, '이자벨마랑' (28일~12월14일)은 20~30% 할인율을 내세웠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같은 기간 정기세일과 다양한 기획전을 마련했다.

행사 첫날인 15일 오후 2시에는 선착순 200명을 대상으로 '100% 당점 스크래치 복권 이벤트'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모바일 앱을 통해 이벤트에 참여한 뒤 9층 사은행사장에서 선물을 수령하면 된다.

17일까지는 '이월상품 기획전'이 이어지고 '블랙야크' '아이디' 등이 참여하는 '아웃도어 기획전', '여성 겨울 부츠 페스티벌', '루치아노치와 리베도 특집전' 등이 고객을 만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수험표 있으면 메이크업 무료로 해드려요”

책갈피 증정 등 기획전 다양

지역 유통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14일)을 치르는 수험생을 겨냥한 다양한 이색 기획전을 마련했다.

13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15~17일 수능 수험표를 가지고 온 고객을 대상으로 '메이크업 무료체험 서비스'를 진행한다.

선착순 사전예약을 하면 '맥' '에스티로더' '바비브라운' '베네피트' '메이크업포에버' '나스' '헤라' 등 7개 브랜드 매장에서 무료 화장을 체험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과 롯데아울렛 수완점 등에 입점한 '베비에르' 제과 매장은 수능을 앞두고 초콜릿, 찹쌀떡, 롤케이크 등 합격기원 제품을 사는 고객에게 행운을 가

져다 주는 것으로 알려진 '네이클로버 책갈피'를 증정하고 있다.

(주)광주신세계는 14일까지 수험생을 위한 다양한 선물 상품을 선보인다.

매장 지하 1층 식품관 '사랑과 응원의 기프트전'에는 '페레로 로쉐' '칼파제르' '텔라비우다' 등 초콜릿과 찹쌀떡 등 응원 선물이 마련됐다. 같은 층 임시 매장(팝업스토어)에서는 생화 상태 그대로 보존된 '프리저브드 플라워'가 판매되고 있다. 이곳은 수험생들의 긴장 완화와 기분 전환에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꽃다발, 유리돔, 미니 화환 형태로 1만 5000원~8만원에 판매된다.

신관에 위치한 '러쉬' 매장은 라벤더가 들어 있어 숙면에 도움을 주고 머리를 맑게 해 집중력을 높여주는 '아로마 세트' 상품을 내놓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15~17일 수능을 치른 수험생을 대상으로 '메이크업 무료체험'을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신세계, 13년 만 전관 리뉴얼 완료

'고메 스트리트' 오픈

(주)광주신세계가 전문 식당가를 지하 1층에 열며 13년 만의 전관 개선작업을 마무리했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8일부터 지하 1층에 150평(495㎡) 규모 전문 식당가 '고메 스트리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전반적인 매장 개선을 진행해온 광주신세계는 이로써 모든 리뉴얼(Renewal) 작업을 마쳤다.

'미식이 거리'라는 뜻을 지닌 이 식당가에는 한식과 중식, 일식, 퓨전 요리 등 음식 전문점 3곳이 자리했다. 한식당 '화나'

는 신안 소금과 장흥 무산김, 장흥 김인순 명인의 고추장 등 지역 특산물을 음식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영업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밤 9시20분까지다.

광주신세계는 매장 개선작업의 하나로, 지난 6월 광주 7곳 등 유명 음식점 21곳이 신규 참여하는 '푸드플라자'를 지하1층에 선보였다.

지난 8월에는 2975㎡(900평) 규모 '프리미엄 생활 전문관' 문을 열어 프리미엄 가전 판매를 시작했고, '패션 스트리트'라고 불렀던 신관은 기존 2000여 평(6610㎡)에서 500여 평 더 늘려 재개장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청년 창업자, 향토자원 활용 아이템 눈에 띄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예비 창업가 22명 지원

전남지역 청년들이 향토자원을 활용해 내놓은 제품들이 호응을 얻고 있다.

13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두 차례 진행된 '향토자원 활용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예비 창업가 22명이 참가했다.

이 사업은 전남도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역사와 식품, 특산물, 유적 등 향토자원을 활용해 창업에 도전하는 지역 청년을 지원하는 창업지원 사업이다. 올해는 6억 7000만원 상당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참가자들은 창업자 기본 교육을 포함해 ▲심화 교육 ▲국내 선진지단체 견학 ▲일일 맞춤형 멘토링 등에 참여한다. 창업 지원 대상자에 선발되면 최대 3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교육 기간 동안에는 교재와 1일 3만원의 수당도 주어진다.

사업 지원을 받은 청년들은 향토자원을 활용해 식품과 상품, 문화콘텐츠까지 다양한 종류를 개발해 창업에 나서고 있다.

사업에 참가한 이세운(26)씨는 자신의 고향 무안지역의 특산물 고구마로 '아이스 군고구마'를 개발했다. 이씨는 "창업을 준비하면서도 마케팅과 브랜딩 등 사업적인 내용은 잘 몰랐는데, 교육 덕분에 창업을 위한 틀을 잡을 수 있었다"며 "창업지원금과 멘토들의 현실적인 경험담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는 "향토자원을 활용한 창업으로 전남도와 지역 청년이 함께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청년을 위한 창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향토자원 활용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의 신청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무안 청년 이세운씨는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향토자원 활용 청년창업 지원'을 통해 '아이스 군고구마'를 선보이고 있다.

'풍광수도' 오늘 홈쇼핑 방영

전남쌀 공동 브랜드 '풍광수도' 햅쌀이 14일 TV홈쇼핑 채널인 (주)공영쇼핑에서 방영된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14일 오전 10시 40분부터 11시 50분까지 '풍광수도' 올해 햅쌀 2500세트(10kg 2포)를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4일 풍광수도 햅쌀 첫 방송에서는 1911세트가 판매돼 1억8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기록했다. 올해 풍광수도는 공영쇼핑을 통해 총 6회 방송되며 9억4000만원 상당(10kg 3만2723포)의 판매고를 올렸다.

전남본부는 지난 달 말부터 수도권과 제주 등지에서 본격적인 '풍광수도' 판촉을 벌여오고 있다. 풍광수도 햅쌀 매출액은 10월 말 현재 10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억원 증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